

一般意味論序說

—韓國文學作品 評價試圖를 위한—

尹 弘 老*

- I. 序 論
- II. 一般意味論의 成立背景
 - 1. 意味論의 起源
 - 2. Significs
 - 3. Formalismus
 - 4. Pragmatism; Operationalism
 - 5. 文學批評
 - 6. 言語學
 - 7. 一般意味論
- III. 一般意味論의 實際
 - 序 言
 - 1. 아리스토텔레스 體系 哲學의 批判
 - 2. 言語의 語謬
 - 3. 意味의 混用
 - 4. 二值的 思考方式
 - 5. 韓國文學에 나타난 二值的 思考方式
 - 6. 共感覺隱喩

I. 序 論

言語의 意味 問題가 학술적으로 등장하기는 약 1C 전이었지만, 一般 大衆의 관심을 끈 것은 1930年代 美國에서 一般意味論이 研究되면서 비롯되었다. 一般意味論의 創始者는 폴란드系 美國人 學者인 Alfred Korzybski(1879~1950)다. “教育이란 價値評價를 올바르게 할 수 있게 訓練하는 것이다”란 理論을 내세우고 言語와 人間 關係式을 多樣하게 接近하는 方法을 模索한 것이 一般意味論의 發生 動機였다. 말하자면 人間 精神의 健全性, 適應性에 심각한 關心을 가지고 1930年代 쏟아져 나오는 매스·콤 언어와 특히 상업적인 광고문장같은 言語公害를 예방하기 위한 劃期的인 言語革命觀이다. 一般意味論은 Freud 以後 數學, 數理 論理學, 物理學, 生物學, 神經學, 心理學, 精神病學 等 총체적인 多樣하고 包括的인 知識 廣範圍한 領域의 探究를 基礎로 하여 思考의 傾向, 評價習慣, 그리고 그들에게 接近하는 方法 等を 試圖하는 학문이다.

*國語國文學科 專任講師

II. 一般 意味論의 成立 背景

1. 意味論의 起源

약 1C 전 언어학계에는 새 用語가 등장하였다. 1883년 프랑스의 언어학자인 Michel Bréal은 言語의 知的 法則(intellectual laws of language)이라고 일컫는 論文을 發表하였다. 여기서 그는 音韻論이나 形態論같은 言語의 形式 要素 以外에 意味의 內的 要素를 다룰 것을 強調하였다. 所謂 희랍어의 Semphore로부터 由來한 單語인 La Sémantique라고 부를 것을 提起한 것이 Semantics의 由來인 것이다. Semantics가 言語學의 一分科로서 그 位置를 잡은 것은 最近의 일이다. 프랑스의 意味論 學者 P. Guiraud가 意味論이란 術語를 모르고 意味論을 研究했다고 솔직히 고백한 바 있듯이 意味論이란 學問은 얼마나 模糊하고 體系의 研究가 힘드는 것인가를 알 수 있고, 未開拓 分野의 학문이다.

意味論은 近代 論理學에서 言語를 포함한 記號(sign and symbol) 相互間의 法則과 條件이 生成하고 있는 意味研究로서 Semiotic와 單語와 事物과의 關係式, 뒤에는 言語, 思考, 行動과의 관련까지로 확장되고, 人間의 行動이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影響을 받고 있느냐까지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Significs, 그리고 言語學에서 통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語彙變化의 通時的 考察인 Semasiology로 分類할 수 있다. 意味論이 特別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30년대 후반 미국에서였다. 무서운 影響력이 미치는 라디오 신문 등 廣告의 올바른 評價 方法으로 의미론은 일반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매스·콤을 政治的 商業的 思想的 宣傳方法으로 지나치게 惡用하는 結果로 大衆은 차츰 公衆 意見과 宣傳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記號와 말, 그리고 그것들이 一般人들의 思考에 끼치는 影響력에 特別히 주목하게 되었다. 美國에서 널리 알려진 그 당시의 著書를 대충 추려 보아도 얼마나 언어와 상징적인 부호에 관심이 있었나를 알 수 있다.

Stuart Chase의 *The Tyranny of Words* (New York, 1938), Richard Weil의 *The Art of Practical Thinking* (New York, 1940), S.I. Hayakawa의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New York, 1941), Wendell Johnson의 *People in Quandaries: The Semantics of Personal Adjustment* (New York, 1946), Irving J. Lee의 *Language Habits in Human Affairs* (New York, 1941), Anatol Rapoport의 *Science and the Goals of Man: A Study in Semantic Orientation* (New York, 1950), 그리고 Kenneth S. Key의 *How to Develop Your Thinking Ability* (New York, 1950).

이러한 作品들의 裏面에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文學理論——言語와 象徴의 研究, 思考의 動機가 되는 言語의 分析 作業이 試圖되어 왔다.

2. Significs:

‘시그니피칸스’는 論理的 經驗主義의 性格을 지녔다. 近代 意味論은 Viola Welby 女史의 ‘시그니피칸스’에 起源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記號 認識論의 方法으로 人間の 마음에 接近하는 科學이요, 研究다. 그리고 이 方面에 A.N. Whitehead 와 Bertrand Russell의 Principia Mathematica (Cambridge, England, 1910)을 들 수 있다. 數理的 方法으로 意味에 接近하는 方法이다. Welby 女史의 시그니피칸스 理論 樹立의 根本 動機는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헛돌아 가는 言語主義가 만드는 無感覺의 形式性을 排除하려는 데 있었다. Welby 女史의 言語觀은 낱고 맞지 않는 言語 教育의 是正뿐만 아니라, 言語가 바탕하고 있는 人間 經驗에 對한 새로운 心的 態度를 기르려는 데 있었다. 女史의 著書 *What is Meaning* 은 1903년에 著述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言語 心理學에 至大한 影響력을 미치고 있다. 前記한 Whitehead 와 Russell은 數理的 方法으로 意味에 接近하려고 했는데, 明白히 不可避한 論理的 相馳에 부딪혔을 때, 애매한 言語는 찾아낼 수 없는 惡循環의 誤謬를 內包한 채, 不合理하게 全體를 道에금으로 어물어물 넘기려는 點을 지적했다.

例컨대 「모든(all) 서술은 사실이다」^① 따위의 표현에서 「모든」이란 표현은 全體性을 內包해서 實在할 수 없는 모순된 표현이라는 뜻이다. Whitehead 나 Russell 에게 자극을 준 哲學者들은 비엔나학과(Vienna Circle)에 속하는 實證哲學者들이다. 이들은 實證할 수 없고, 論議해 보았자 아무런 所得을 얻을 수 없는 여러가지 종류의 言語 陳述을 지적하고, 大部分의 言語 표현은 事實이 아니라 言語에 대한 言語 표현이라는 것을 밝히고, 多樣한 言語 機能을 分析하면서 意味論에 공헌했다. Rudolf Carnap의 論理的 文章構文法(Logical Syntax)은 말하자면 言語의 形式과 法則을 分析한 哲學的 方法論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思潮는 1935년경 Alfred Tarski 와 L. Lukasiewicz 를 위시한 폴란드 학파 의미론학자들의 數學的 論理學의 方法論으로 일어났다.

1938년 一群의 經驗論理學的 意味論 學者(Otto Neurath, Niels Bohr, Bertrand Russell, John Dewey, Rudolf Carnap, Charles Morris)들은 記號(Signs)의 적당한 應用이 궁극적으로 知識의 體系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ied Science의 出刊을 했다. 知識의 體系의 單一化는 特殊한 分野의 科學的 用語의 關係式의 定立과 科學用語와 여러 分野에서 제각기 活動하고 있는 人間들의 用語와의 合作的인 關係式에서 成立되어진다고 이들은 믿고 있다^②. 이와같은 記號論理學의 方法論에서 人工言語(Künstliche Sprache)까지 등장하였다. 形式主義와 더불어 생긴 人工言語를 Whitehead 와 Russell은 다음과 같이 正當化했다.

1) 일반적으로 科學 特別 論理學에서는 너무나 抽象的이어서 日常的인 言語가운데는 그것에 對應하는 말을 찾아 볼 수 없는 概念을 使用한다. 그러므로 거기서는 記號의 形式을 尙요.

註 ① Korzybski는 a map does not represent all of a territory (words are not the things they represent)라고 지적하여 言語와 事物間의 區別을 強調했다.

② *Language, Meaning and Maturity*, Edited by S.I. Hayakawa, p. 24~26.

하고 있다.

2) 日常言語의 構文論은 정밀하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엄밀한 構文論的인 固有의 規則을 갖는 人工言語를 확립하는 것이 편하다.

3) 人工언어를 사용하는데 찬동한다면 아주 간단한 기호(전부의 말 대신 개개의 文字等)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命題들은 日常言語에 있어서보다 더 간단하고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다.

4) 대개의 일상언어의 말들은 대단히 多義的이다. 예컨대 「이다(ist)」란 말은 그것을 분석함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해야 할 서로 다른 의미들을 적어도 한 타스나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말 대신에 인공적이고 一義的인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③

3. Formalismus

언어분석학은 처음부터 우리의 日常言語가 애매하고 多義的이고 따라서 不滿足스럽다는 불만에서 출발했다. 우리의 日常言語는 정확한 論理와 엄밀한 科學을 위한 도구로서는 불만스럽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분석학은 문장들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다는 의미에서 분리된 문장들의 형식들을 인위적인 기호들을 통해서 조작한다. 이러한 操作(Operation)을 形式主義(Formalismus)라고 한다. 여기에서 形式主義는 文章의 意味는 도외시키고 그 형식만을 다루는 方法論的인 뜻을 의미한다. 언어분석학의 이러한 形式主義는 現代科學의 抽象化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오늘날의 과학 특히 物理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혹은 마음에 그릴 수 있는 모델(Model)이 없는 理論이다. 모델이 있는 과학의 이론으로부터 모델이 없는 이론으로의 전환은 그 方法에 있어서의 형식주의의 더 넓은 적용을 뜻한다.

4. Pragmatism; Operationalism

實用主義들의 單語와 記號의 意味는 從來의 觀念的인 解釋이 아니라 人間 行動에 實際로 適用 如否에 기준을 두고 있다. 예컨대 여기 5피트 길이의 冊床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로 잰 수 있을 것이고 의미의 확증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가령 “사람은 날때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어디서나 노예의 사슬에 얽혀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그 眞僞를 판가름할 수 있겠느냐?는 해석이다. 그런 말은 無意味하다는 것이다. 操作主義(Operationalism)가 摸索하는 것은 人間の 價値評價에 對한 革命이다.

美國 意味論의 先驅者인 Alexander Bryan Johnson(1786~1867)은 “自然을 解釋하기 위해 말이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解釋하기 위해 自然이 存在하고 있다”는 프로그램으로 강의한 바 있다. 大部分의 人間은 서술적인 眞僞를 판가름할 때, 전에 들은 바 있는 既存 先入見에 편하게 맞추어 판단하는 습관이 있다. 相對的 理論으로 論證해 보아도 이미 지나간 시간과 거리의 中間 介在物로 事物은 변천되어 있고 觀察者의 思考構造도 제각기 다른 것이다. 이런

註 ③ I. M. Bochenski: *Die Zeitgenobischen Denkmethode*n, (이초식 역), p. 84.

의미에서 Einstein의 相對性 原理는 단순한 形而上學의 改革이 아니라, 意味論의 分野에서 더욱 改革될 수 있는 것을 暗示한다. 事實을 無視한 言語는 破産당해야 하며 더 이상 취급되어질 수 없다는 見解에서 言語의 操作主義는 생겼다.

5. 文學批評

文學界에서 意味論의 試驗은 I.A. Richards가 적용했다. 텍스트의 正確한 解釋을 하기 위해 자극받아서 著述된 그의 著書로는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New York, 1924), *Practical Criticism* (London, 1929), 그리고 *Interpretation in Teaching* (New York, 1938)이다. 그밖에 1942년 詩의 教科書的 分析에 공헌한 月刊紙 *The Explicator*와 Hugh R. Walpole의 *Semantics* (New York, 1941), F.A. Philbrick의 *Understanding English: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New York, 1942)이 文學作品의 意味論的 接近方法을 摸索하였다.

특히 Welby 女史의 ‘시그니피칸스’의 연구 계승 作業으로 Richard의 *The Meaning of Meaning*은 종래의 意味科學이 사전적인 해석학에 그친데 반해서 心理學的, 人類學的, 自然科學的 領域으로 擴張하는데 至대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法學的, 科學的, 哲學的 思考의 變換에도 큰 공헌을 했다. 독일의 철학자 Ernst Cassirer(1874~1945)는 言語와 神話 創造과정과를 同一視하였다.

Cassirer는 “言語는 傳達이나 詩論, 合理化的 過程으로 道具化되기 以前 概念化되고 상징화되어서 存在하고 있다”고 믿었다. 言語의 概念化는 精神作用의 原初的인 것이다. 그런데 그 상징적인 記號는 概念을 固定시킨다. 神話와 言語는 人間 自身과 주위 환경에 對한 人間의 直觀을 最初로 具現시킨다. 그렇지만 言語가 展開됨에 따라 言語는 산만하게 使用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論爭과 討論과 論理的인 理由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神話는 反對 方向으로 展開되어 감에 따라(의례적인 宗教나 藝術 포함) 제각기 全體로서 채택된 상징들의 보기다. 人間의 마음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論理的인 論文에 앞서 있는 言語와 神話에 감추어진 概念化的 過程(예컨대, 은유의 과정)을 理解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Cassirer는 믿고 있다. Susanne K. Langer는 藝術分野에서 直觀性を 主張하고, 繪畫 分野에서는 다른 繪畫의 手法으로 論駁할 수 없다고 했다. 詩는 推理性이 있지만 全體적으로 보아 直觀性を 띠었기 때문에 다른 詩의 理論으로 亦是 論駁할 수 없다고 하였다. Langer의 상징적인 變形 理論은 言語, 論理, 藝術 특히 音樂을 보는 觀點에 새로운 態度를 갖게 했고 文學과 藝術 理論에 풍부한 資料를 提供하였다.

6. 言語學

音韻論, 形態論, 文章論에 정력을 기울인 나머지 言語學者들은 意味 問題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dward Sapir(1884~1939), Bronislaw Malinowski(1884~

1942), Benjamin Lee Whorf(1897~1941)와 Dorothy Lee와 같은 言語學者들은 “言語는 단순한 思考의 표현이 아니라 人間이 觀察하고 思考하는 實在의 특징을 결정한다”는 從來의 意味論學者들의 見解를 굳혔다. 유럽諸國의 言衆들은 事物을 線的인 상상으로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다. 例컨대 a line of trees, the thread of discussion, the sales curve, the branches of learning 따위다. Lee와 一致하는 Trobrianders는 그런 線的인 言語 見解를 갖지 않고 言語를 集合的인 덩이로 보고 있다. 즉 유럽 언어들은 상상공간(Imaginary Space)에서는 어떤 덩이의 은유로서 말하여진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7. 一般 意味論(General Semantics)

General Semantics의 名稱은 폴란드系 美國人 學者인 Alfred Korzybski(1879~1950)에 의해서 創始되었다. 그는 學者인 동시에 엔지니어이고 “教育이란 價值評價를 올바르게 할 수 있게 訓練하는 것(To train people in ‘Proper Evaluation’)”이라는 새로운 理論家이기도 하다. 그는 어릴 때 獨語, 佛語, 露語, 波蘭語 등 많은 外國語를 習得했으며, 技術者인 父親의 影響으로 數學者, 技術者가 되려고 工夫하였다. 그의 回顧談에 依하면 幼年時代에 言語를 四重으로 익힌 것이 一般 意味論의 土壤이 되었다고 한다. 즉 어떤 事物에 各語마다 다른 名義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은 語 즉 이름이 事物 自身이 아니라는 것에 남달리 着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化學, 物理學, 生理學, 神經學과 같은 自然科學에도 造詣가 깊었지만 人文科學인 哲學, 論理學, 心理學 特히 프로이드 心理學, 精神病學, 語學 등 相當히 廣範圍한 研究를 쌓은 異色の인 學者요 思想家라고 할 수 있다. 그가 人間의 가장 根本的인 適應(Adaption)에 關하여 심오한 思索을 傾注하게 된 緣由는 35歲 때 世界 1次大戰이 발발함에 폴란드大公의 幕僚로서 參戰 세번이나 戰傷을 입고, 後에 露西亞의 장교로 參謀本部 情報部內에서 戰爭 捕虜를 相對로 한 體驗이 있기 때문이었다. 戰線에서 後送되어 온 포로들은 精神 神經 障害로 完全하고도 健全한 人間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많이 目睹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人間이 산다는 것, 즉 人間生活, 人間問題, 人間精神의 健全性 適應性에 深刻한 關心을 남달리 갖게 되고 그 후 一生을 통해 이를 目標로 삼아 研究끝에 一般 意味論이라는 學問의 體系를 樹立하였다.

非科學的인 傳統的 慣習의 評價方法이 近代 科學을 바탕으로한 言語 構造의 方法으로 變更된다면 社會의 改善도 技術 革命처럼 急速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一般 意味論學者인 Korzybski의 학설이다. 文化와 西歐文明圈의 革命을 선언한 改革 原理로서의 Korzybski의 一般 意味論은 人類學的, 社會學的, 哲學的, 倫理學的 問題에 對한 思考의 類型(Pattern)을 急進的으로 變化시키고 있다. 一般 意味論은 Freud 以後 數學, 數理論理學, 物理學, 生物學, 神經學, 여러 종류의 心理學, 精神病學 등의 총체적인 多樣한 知識, 廣範圍한 領域의 探究를 基礎로 하여 思考의 傾向, 評價習慣, 그리고 그들에게 接近하는 方法 등을 試驗

하고 있다.

一般 意味論은 實用 意味論이라고도 하는데, 一般(General)이라는 의미는 言語行動 더 나아가서 人間 行動의 全般에 걸친다는 점에서 붙인 名稱이다. 意味論은 現在 研究하는 觀點에 따라 여러 方向이 設定될 수 있다. 프랑스의 意味論學者 Guiraud는 다음 세 方向을 말하고 있다.

- 1) 言語學的 意味論(La Sémantique Linguistique)
- 2) 哲學的 意味論(La Sémantique Philosophique)
- 3) 一般 意味論(La Sémantique Générale)

1)은 純粹히 言語構造面에서, 2)는 記號論理學的인 面에서, 3)은 記號를 社會, 心理, 論理學的인 面에서 研究하는 것이라고 했다. 一般 意味論은 3)에 해당한다. 人間이 記號中 特別히 言語記號에 대하여 어떻게 反應하는가? 이에 따르는 生理的 心理的 社會的 論理的 諸 問題가 隨伴되어 研究된다. Guiraud는 一般 意味論을 意味 現象의 心理學的인 問題로 提起하여 論及하였다. 美國의 意味論學者 Concon은 一般 意味論은 語나 記號에 대한 人間の 反應 研究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study of semantics is the study of how person respond to words and other symbols”.^④

Korzybski는 그의 첫 著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나의 첫 企圖는 人間科學(A Science of Man)을 設定하려는 데 있다.” 말하자면 非 Aristoteles 體系的인 非原理的(Non-elementalistic)인 科學的이고 機能的인 方法으로 人間을 定義해 보자는 作業이다. 그는 人間과 動物과의 가장 두드러진 差異點은 時間 結束 與否라고 밝혔다. 그는 이 著書에서 時間結束問題(Time-binding)를 취급하려고 한다.^⑤ 그에 의하면 人間과 動物은 全혀 다른 神經反應(Nervous Response)을 가지고 있으며 人間の 發展은 이 神經反應을 개발해서 人間과 人間과의 그것이 古代人和 現代人이든, 東·西洋이든, 時間 協同이 있을 때만이 可能하다고 했다. 動物은 時間의 의미가 없다. 몇 천년 전의 벌이나 현대의 벌이나 똑같은 구조와 자료를 써서 집을 짓는다. 몇 천년전 벌의 조상의 사고방식이나 현대의 벌의 사고 방식과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人間の 사고 차이는 급격하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現 社會는 近代의 物결로 急變하여 20년의 연령 차이만 있어도 世代差 云云하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Korzybski는 만약 人間이 人間の 長點을 開發하지 않고, 動物의 世界처럼 神經조직이 굳어지면 人間の 發展은 不可能하다고 지적했다.

“If we copy animals in our nervous responses through the lack of knowledge of what the appropriate responses of the human nervous system should be, we can stop doing so, both

註 ④ John C. Condon, *Semantics and Communication*, p. 1.

註 ⑤ Alfred Korzybski, *Science and Sanity*, p. 20.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and we are thus led to the formulation of a first positive theory of sanity.”

Korzybski 는

植物은 Body binder

動物은 Body binder+Space binder

人間은 Body binder+Space binder+Time binder 이므로

三次元的인 時空間的 協同이 人間에게 있으므로 發展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問題는 時間이 흐름에 따라서 아무 변동이 없는 理由는 人間 内部 신경조직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動物의인 反復의 굴레에 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리스토의 이론이 어찌서 2000년이나 지난 오늘 그대로 不文律로 적용되느냐? 韓國人の 경우에도 傳統의 美名下에 슬하게 잘못 傳해지는 思考의 고질 때문에 많은 發展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구체적인 例로 몇천년의 초가집 구조와 現代 農村의 초가집 구조와는 얼마나 變化가 생겼으며, 그들의 思考構造와 古代人の 思考構造의 差異는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자. 어딘가 고질화된 神經반응(Nervous Reaction)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Korzybski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神經반응의 치료이다. 非아리스토, 非유클리드, 非뉴톤 體系의 樹立이란 바로 고질화된 絕對性的의 架空에 對한 挑戰이다. 各 時代는 그 時代에 맞는 心理的 反應의 表現이 있다. 各 時代는 그 時代에 自然스럽고 쉽게 맞아 적용될 수 있는 心理學的 背景을 가진 젊은 世代를 낳게 되는 것이다. 아리스토時代에는 유클리드體系가 쉽게 理解될 수 있는 世界인지도 모르지만 非아리스토的인 습관으로 키워진 젊은 世代에게서는 非유클리드體系가 發生될 수 있는 것이며, 옛날 體系는 適應될 수 없다.

人間の 神經조직 기능은 동물의 것보다 더 可能性이 있고 概括할 수 있다. 그래서 一般 意味論은 보다 포괄적이고 多樣하게 科學의 應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Korzybski가 열거한 몇 개의 특징을 소개하겠다.

- 1) 時間結束(그는 記號로서 可能하다고 전제함)의 一般 理論에서 結果된 一般 意味論의 公式化는 科學者나 一般人들에게 낳은 心理的인 고질적 방해와 그 치료의 方法을 提示해 준다.
- 2) 아리스토體系의 理論은 生物 生理學 등의 方法을 可能하게 하고, 특히 不適當하고 낱아 빠진 固定 用語는 近代化된 아교적(Colloidal)인 量子的인 用語로 代身하게 한다.
- 3) 정신치료법으로 ‘신체—心理문제’의 해법을 提示해 준다.
- 4) 바람직한 人間の 특징을 연구하려면 오늘날까지 잘못 認識되어 왔던 일정한 정신생리학 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一般 意味論은 보여 주었다.
- 5) 그것은 物理—化學的인 用語에 ‘의식’이라는 定義를 처음으로 내리게 했다.
- 6) 의미반응(Semantic Reaction—의미와 결부된 단어나 기타 부호 따위의 자극물에 대한

心理的 反響)의 不安定性을 취급할 때 精神療法の 一般理論에 健全性(Sanity)의 一般理論을 적용했다.

7) 그것은 精神生理學的인 實驗方法을 방해하는 諸般 要素를 없애는 生理的 [方法의] 精神위생학을 定式化했다.

8) 그것은 오늘날 個人, 公衆, 國際關係의 삶에서 幼稚病的인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人間性的인 幼年期에 對한 精神 生理學的인 바탕을 기초하였다.

9) 그것은 生物學에서 全體로서의 組織(Organism—as—a whole) 문제로 意味論的인 構造的인 (Structural)인 해결점을 찾아 냈다.

10) 그것은 精神病學 神經痛學에서 Pavlov의 條件反射의 理論을 人間の 리벨까지 내려서 재편성시켰다. 말하자면 精神生理學的인 새로운 實驗科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셈이다.

11) 그것은 認識論과 意味論에서 定義되어진 것 뿐만 아니라 定義되지 않은 部分의 의미의 非本質的인 어떤 理論(a definite non-elementalistic theory of meaning)을 樹立했다.

12) 그것은 構造의 새로운 發展과 使用으로 이끌었다.

(It introduces a new development and use of 'structure')

13) 그것은 知識體系를 세우는데 유일한 方法으로 構造(Structure)를 設定했다.

14) 그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用語인 平凡의 多樣(Multiordinary)을 발견했다. 그래서 심리적인 장애를 의미론 발생의 동기가 되게 하고 平凡한 인간이나 과학자로 하여금 天才의 位置로 올려 놓게 했다.

15) 그것은 새로운 생리적인 理論을 極히 單純하고 廣範圍하게 應用할 수 있는 數學的인 類型으로 定式化하였다.

16) 그것은 數學的인 '無限大'의 문제를 非아리스토텔레스體系의 해결점으로 귀착시켰다.

17) 그것은 非아리스토텔레스體系, 의미론(그리스 때부터 전한 소위 '語義學')에 수학적 수적인 의미의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했다. 즉 어마어마하게 重要視되었던 數와 量에 對한 神秘스런 것들을 明白히 하고, 構造的인 語義學, 意味, 그리고 數學的인 方法論과 가르침에 새로운 轉機를 갖게 했다.

18) 物理學 分野에서 어떤 基本的인 것을 說明해 주고, 아직까지 輕視되었지만 物理學에 있어서의 어떤 意味的인 要素를 一般化시켰고,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量子 理論을 特殊化시켰다.

19) 그것은 보다 새로운 量子力學的인 非決定論(indeterminism of the newer quantum mechanics)의 問題를 單純하게 解決했다. ⑥

註 ⑥ *Ibid.*, p. 8~9.

III. 一般 意味論의 實際

神은 人間을 容恕하지만 人間の 神經體系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古代金言—

序 言

1933年 非아리스토텔레스體系와 一般 意味論 序說인 Science and Sanity가 Korzybski에 의하여 저술되었다. 1935년 그는 一般 意味論을 各界 各層 各 大學, 學校의 教育者, 科學者, 精神病治療醫師, 醫師들에게 강연하기 시작했다. 同年에 워싱턴대학에는 一般 意味論 協會가 조직되었다. 1938년에는 시카고에서 神經言語學的, 神經認識學的, 科學研究 教育機關들이 서로 有機的인 合一體를 만들었다. 이렇게 成長한 一般 意味論 協會의 指導者로 Korzybski는 經驗科學의 여러 데이터를 총집합시키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실제 人間조중에 應用해 보고, 各 分野의 科學者들에게 적용해 보았다. 現在 美國의 많은 大學에서는 一般 意味論의 講義가 認定되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一般 意味論이란 一般的 意味의 哲學이나 心理學, 論理學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경조직계통이 어떻게 하면 가장 능률적으로 사물에 대할 수 있나를 說明하고 혼련시키는 새로운 外在的 혼련(Extensional Discipline)이다. 그렇다고 그것은 醫學은 아니요, 一種의 細菌學(Bacteriology)과 비슷한 것이다.

勿論 그것은 통상적으로 의학과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 것이요, 特別히 教育, 정신병학, 정신위생학과는 긴밀한 關係가 있는 학문이다. 요컨대 그것은 모든 分野의 科學과 生活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非아리스토텔레스體系의 理論이다.

이 經驗學的 一般 意味論의 理論은 從來의 傳統的인 內在的인 評價方法(Intensional Methods of Evaluation)이 신경계통의 분열증을 초래한데 반해서 신경계통의 균형잡힌 완성 통합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정신치료학적 요소도 지니고 있다. 이 理論은 여러가지 의미적 장애를 감소시켜주고 고통을 덜해 준다. 어떤 노이로제 증세와 정신병적인 증세를 포함한 情緒的 不安定도 감소시킨다. 그밖에 여러가지 人間 相互間에 不協和音이나 言語 讀書 障礙까지도 치유한다. 이 모든 장애와 곤란은 大部分 人智를 잘못 사용하여 正當한 評價方法(Proper Evaluation)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라고 一般 意味論은 結論하고 있다. 심장, 소화, 호흡, 性的인 不安증세, 어떤 만성적인 關係, 치통, 우울증, 피부병, 알콜중독 기타 모든 정신 작용병의 환자들은 의미, 신경언어, 신경의미 계통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理論이다. 勿論 一般 意味論의 訓練은 의학적인 각도의 치료를 하려는 바는 아니고, 단지 의미전달 계통의 장애를 없애자는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의미장애가 되는 몇가지 점을 略述하여 보겠다.

1. 哲學者의 態度

어떤 哲學者, 心理學者, 論理學者, 數學者 등은 그들의 精神作業이 그들 자신의 神經組織體系의 所産(The product of the working of their own nervous systems)이라는 것을 認識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대부분의 學者들은 정신병동의 환자처럼 現實과 거리가 먼 ‘고립된 언어作爲(Detached Verbalism)’에 휘말려 들어 있다. 정신병환자들의 言語를 보면, 그들의 言語는 事實과 거의 엉뚱한 말이며, 그 말들은 말과 서로 相互作用을 하여 말로서 말이 많아진다. 그런 理由에서 환자다. 어째서 환자들은 그들 자신의 神經반응의 기능에 自覺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병원의 환자 대신 觀念적인 言語의 노예가 된 아카데미한 사람들의 말도 검증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의 神經계통조직도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一般意味論의 作業은 살아 있는 神經—의미론적, 神經언어학적 반응(The living neuro-semantic and neuro-linguistic reactions)을 취급하는 것이고 抽象的인 고립된 言語문제를 단순히 다루는 것이 아니다. 分裂 증세가 심한 증세의 환자일지라도 그가 자기 자신의 神經전기적인 아교질 용어(neurological electro-colloidal-terms)를 이해하면 상당히 유익하다는 실험을 Korzybski는 말했다. 이런 뜻에서 Goethe가 사람은 그가 아는 것 밖에는 들을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은 깊은 의미를 가졌다.

언어가 이룩하는 이른바 중간 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은 외부 세계의 사물을 그의 의식의 대상으로 만든다. 따라서 사물의 세계(Sachwelt)와 인간의 의식(Einzelbewußtsein) 사이에는 언어습득과 더불어 물려 받은 그리고 언어 소유에 있어서 작용하는 이른바 언어의 중간세계가 있다. 이 중간 세계의 도움으로 비로소 객관적인 사물이 주관적인 의식의 존재가 된다. 생물학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만일 인간이 외부로부터 밀어 닥치는 그 무수한 자극들 중에 자각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극만을 지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시사는 특히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주어 진다. 인간의 내면적인 복잡한 정서는 그것을 담은 말의 종류에 따라서 특수하게 드러나고 의식되고 판단된다. 그리고 인간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행동 방식은 그의 언어 사용의 형식과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⑦ 수학자, 論理학자, 철학자들도 人間 內部的 神經계통의 所産으로 思惟한다. 그런 의미에서 經驗으로서의 自然科學의 方法으로서의 一般意味論의 唯一한 對象은 ‘살아있는 반응(Living reaction)’의 分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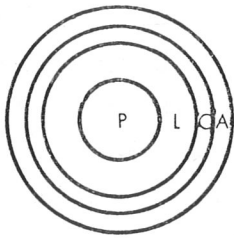
2. 言語의 誤謬

事實上 經驗의으로는 存在하지 않는 어떤 架空的인 것을 一群의 學者들은 同一要素(Identity)의 方法으로 未來의 世代에게 가르쳐 神經的으로 不適應 내지 精神病的인 要素를 집어 넣어 준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다(is)’라는 말은 言語에는 存在하지만 事實世界에서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莫大한 자본을 투자해서 쓸모없는 神經言語와 意味를 學生들에게 注入하여 社

註 ⑦ I.M. Bochenski, *op. cit.*, p. 77~78, 이초식 역.

會에 적용될 수 없는 世代를 만든다는 것은 悲劇이다. 慣習的인 無力症에 빠진 言語主義(Inertia verbalism)에 바탕하고 있는 아카데미한 短見에 오늘날 많은 全體主義의 指導者는 빠져 있다. 그리하여 그런 파괴적인 言語로 人間의 나약한 弱點인 신경조직을 공공연히 그런이들은 무너뜨리고 있다. 例컨대 나치즘주의자들이 그 좋은 본보기다. 그들은 독단적인 언어의 마술에 빠져 전체 독일 국민의 神經조직을 파괴시키고, 불행하게도 1941년의 大不幸을 겪게 하였다.

또하나의 오류는 哲學用語의 體系같은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概念化되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를 (A)로 (A)보다 훨씬 제약되고 훨씬 일반화된 體系인 Christianity 를 즉 (C)로, (C) 안에 라이프니츠體系를 (L)로, (L) 안에 個人的인 體系로 Personal System 을 (P)로 概念化하였을 때 각기 (A) (C) (L) (P)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기 獨自의인 體系를 가지고 있지만 同一하지는 않다. 概念의 混同이란 이런데서 $A=C=L=P$ 로 잘못 認識되는데서 발생한다. 말하자면 價値評價의 오류(mis-evaluations)에서 오늘날의 不協和音은 조성되는 것이다. 오늘날 철학자를 위시한 모든 관념주의 학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言語至上主義와 精神病 증세의 價値判斷의 誤謬에서 由來한다. ⑧

The central ideas of General Semantics are concerned with the importance, for mental health, of adapting a scientific orientation toward reality. Such an orientation would have to involve a proper appreciation of the symbolic systems in perception and in Communication. ⑨

J. Carroll의 一般意味論의 基本概念은 言語(記號體系)의 意味를 正確하게 評價해서 事實을 把握하자는데 있었다. 그래서 정신건강을 유지하자는데 있다.

一般意味論에서는 言語의 面을 言語世界(Verbal World)라고 指稱하고 事實의 面을 非言語世界(Non-verbal World) 또는 外在世界, 事實世界(External World)라고 하여 학술어로 用語化하였다. 兩者間에는 各各 特性이 內在하여 왔다고 보는데 이 兩世界를 有效 適切하게 正確하게 對應 關係시킨다는 것이 問題가 되는 것이다. 理想的으로 完全히 兩者間에 合致되면 人間 間에 調整이 쉽게 되고 部分 理解 誤解 歪曲이 介 入할 수 없다고 하였다. 事實構造는 言語構造보다 몇배나 複雜하고, 變化가 많은데 言語表現에서는 어휘 부족 用法 문제 등으로 事實世界를 完全히 表現하기 힘든 것이다. 科學用語는 事實과 一致 關係가 成立되어 別異論이 惹起되지 않지만 日常生活言語는 엄밀히 따지면 事實과 乖離가 있어 誤解 沒理解 意味衝突이 자주 빚어진다. Korzybski는 言語와 事實의 關係를 地圖(Map)와 現地(Territory)의 關係로 比

註 ⑧ Korzybski: *op. cit.*, p. 26~34.

⑨ S.I. Hayakawa: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p. 31.

喩하여 思索을 發展시켰다.

Hayakawa 도 “There is a sense in which we all live in two worlds. First, we live in the world of happenings about us which we know at first hand. ...All our knowledge of history, for example, comes to us only in words.”라고 하였다. 個人的 體驗을 直接的으로 감각으로 얻은 知識이란 극히 작은 部分이며 우리들의 知識의 大部分은 兩親, 友人, 學校, 新聞, 書籍, 會話, 講演, 라디오, T.V. 등에서 얻는데 그것은 말로써 얻는다고 하였다.

“Now this verbal world ought to stand in relation to the extensional world as map does to the territory it is supposed to represent.”^⑩ Hayakawa 도 言語的 世界와 外在的 世界와의 關係를 地圖과 그것을 代身하는 現地와의 關係를 說明하고, 아이가 成人으로 자라면서 自己의 넓어가는 經驗의 世界에 부딪혔을 때, 그가 새로운 世界에 當황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 方法으로 外在的 世界와 밀접한 言語教育을 예비적으로 받는 것을 권장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된 言語教育으로 아이의 예상과 걸맞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 아이는 人生에의 새로운 準備期間을 言語로서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그가 머리에 그릇된 地圖를 가지고 成長하면——즉 그릇된 知識과 迷信으로 머리가 팽 차면——그는 困難에 逢着하고 努力을 虛費하는 어리석은 行動을 하게 된다. 그는 現世界에 適應되지 않고 萬一 適應性의 不足이 심하면 결국 腦病院에 찾아 가는 不幸을 겪어야 한다. 머리속의 거짓된 地圖로 因하여 우리들이 犯한 우둔이 너무 日常化되었으므로 그 거짓된 地圖의 言語를 잊어 버리기 쉽다. 가령 어떤 사람은 돌발사건을 예방하려고 토끼발쪽을 포켓에 넣고 다니며 또 어떤 사람은 호텔의 13층에서는 숙박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꿈을 占치는 冊에 의하여 日常生活의 계획을 每日 精한다. 어떤 사람은 이를 회계 하기 위하여 商標가 다른 齒藥을 使用한다.^⑪

Rapoport 는 “言語라는 手段으로 傳達한다는 것은 原來가 커뮤니케이션의 問題다. 이것도 地圖로 描寫하는 것과 同一한 것이다. 經驗 그 自體는 言語가 아니다. 經驗이라는 것은 全혀 內的인 것이어서 그 自體로서 傳達할 수 없다. 傳達하기 위하여는 經驗은 言語로서 묘사되지 않으면 안된다. 地圖라는 것도 하나의 體系이며 그 內容은 어떤 것을 表象하고 內容間의 相互 關係를 보여 주고 있다. 위는 北쪽을, 靑色은 물을, inch 는 mile 을 상징하고 있다. 地圖 라는 것은 意味를 지닌 Symbol 이다. 故로 言語와 똑같이 커뮤니케이션에 속한다.”라고 한 것 을 보면 言語와 地圖는 그 實在 對象에 對한 묘사라는 點에서 共通되며 記號나 커뮤니케이션 의 手段上으로 同一性을 暗示하고 있다.

그러나 Hayakawa 는 “아무리 地圖가 아름답다 하여도 그것이 場所와의 關係 즉 現地の 構造를 正確하게 한 것이 아니면 旅行者에게는 不必要하다.”라고 하였다.^⑫

註 ⑩ Ibid., p. 32.

⑪ Ibid., p. 33.

⑫ Ibid., p. 33.

오늘날 우리 사회의 神經體系를 살펴보자. 우선 禁忌語를 살펴 보아도 슬하게 많은 의미 요소가 우리 신경체계를 좌우하고 있다. 筆者가 어렸을 때 흔히 들은 예로 “밥 먹고 들어 누우면 소가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밥 먹고는 곧 운동을 해야 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現代 醫學에서는 食事後 30分間은 편안히 신다든지 들어 눕는 것이 좋다고 들었다. “임신부가 닭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살갓이 닭살이 된다”는 禁忌語가 있다. 임신부에게 닭고기는 얼마나 有益한 것인가? “어린 아이에게 계란을 먹이면 말이 느리다”는 禁忌語는 어린 아이를 영양 실조로 만드는 타당지 않은 地圖다.

鄭鑑錄을 믿고 아예 논밭 팔아 鷄龍山에 깊숙히 들어 간다든지, 人間의 運命을 四柱에 맡기고 日月星辰으로 占을 치고, 土亭秘訣을 본후 國會議員 出馬를 하고, 移畝를 하고, 南쪽 學校에 應試를 한다. 그 밖에 風水地理說로 산소 자리를 잘 모셔, 그 덕택으로 後孫들의 吉兆가 보인다든지, 美國 留學까지 갔다 온 인테리가 고급승용차를 타고 가슴 속에는 符籙을 감추고 다닌다든지, 화토장으로 그날 운을 짚어 보는가 하면, 現代式 건물에도 4층(죽을 死字와 음이 같다고 해서 타부시한 것일게다)은 만들지 않는 것을 보면 얼마나 事實과 言語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나? 韓國 社會는 아직까지도 土亭先生과 鄭鑑先生이 5C가 지난 오늘날까지 支配하고 그것은 絶對者의 位置에서 군림하고 있다. 現代 科學 教育을 받은 所謂 知識층에서까지도 그들의 신경구조는 별로 변함없이 잘못된 地圖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非아리스토텔레스體系>는 韓國에서 <非정감體系·非토정體系>로 代置되어야 한다. 어찌서 수십년동안 自己의 상징으로 불리던 이름을 姓名 哲學者로 自稱하는 者의 所見에 따라 하루 아침에 바꾸어야 하는가? 音聲學上 意味上 理由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허황된 哲學으로 바꾸는 것이다. 教會의 說教에서도 이런 종류의 표현이 많다. 헛돌아 가는 觀念語의 나열로 信者들에게 전혀 잘못된 神經 體系를 形成시키는 경우다. 超經驗의인 實證方法으로 靈의인 信仰世界로 이끄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전혀 미신적 방법으로 실제 생활에 不適應症을 惹起시키는 때가 있다. 이에 대하여 Korzbski는 3原則을 提示했다.

- 1) a map is not the territory (words are not the things they represent)
- 2) a map does not represent all of a territory (words can not say all about anything)
- 3) a map is self-reflexive in the sense that an ideal map would have to include a map of the map, which in turn would have to include a map of the map of the map (it is possible to speak words about words, words about words about words, etc; in terms of behavior this means that it is possible to react to our reactions, react to our reactions to our reactions etc.)^⑩

1) 不同一의 原理(the principle of non-identity); 地圖는 現地가 아니다.

2) 非全體의 原理(the principle of non-allness); 地圖는 現地の 모든 것을 대표하지 않는다.

註 ⑩ 註 ②書, p. 27.

3) 自家反射의 原理(the principle of self reflexiveness): 地圖는 自家反射의이다.

Hayakawa 는 地圖를 잘못 읽는 重要한 原因을 두 가지로 규정지었다.

“It should be noticed at this point, however, that there are two ways of getting false maps of the world into our heads; first, by having them given to us; second by making them up for ourselves by misreading the true maps given to us.”^⑭

하나는 남에게서 附與된다. 또 하나는 附與된 正確한 地圖를 自己가 誤讀하여 만든다는 것이다. 즉 父母나 先生이나 其他 言衆에 의하여 이루어진 말이 실제와 다르거나, 그 말을 잘못 받아 들이거나 하는데서 의미 장애가 생긴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이 理論을 記號에 결부시켜 實用面에 응용했다.

1) 記號는 상징화된 사물과 다르다. (The symbol is not the thing symbolized.)

2) 말은 사물이 아니다. (The word is not thing.)

3) 地圖는 그것이 代表하고 있는 現地가 아니다 (The map is not the territory it stand for.) 이 原則들은 요컨대 語와 事物들을 同一視하기 때문에 必要 以上の 誤解, 衝突, 狂信이 생길 可能性이 許多하다.

3. 意味의 混用

從來에 취급하여 오던 意味論의 概念은 言語 爲主의 理論만을 취급하여 온 까닭에 各 個別 對象에 對한 신경의미론적 언어학적 생생한 反應을 研究의 對象으로 삼고 一般 意味論의 考察과는 相當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意味論(theories of meaning)은 極도로 複雜하고 어렵게 되어 거의 絶望의이어서 人間의 健全성을 상실하고 있는 實情이다. 最近 美國의 發展의인 一部 教育者들은 對象(referent)과 操作的인 方法을 使用하였지만 人間의 포괄적인 價値를 說明하기에는 全然 不適當하다. 그러므로 신경조직에 있어서 電氣아교질 같은 行動과 反應에 바탕을 둔 評價理論(a theory of evaluation) 方法이 意味 研究에 도움을 준다.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全體的인 評價기준은 히틀러와 같은 범죄를 가져 왔다는 의미다.

現代 學校 教育에서 시행하고 있는 言語를 위한 言語教育은 非定義된 現實世界에 對하여 全然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개미 채 바퀴 돌듯 言語만이 헛돌아 가는 것이어서 아무런 作用도 없는 것이며, 오히려 觀念主義의 헛 주사만 놓는 아이로니가 있다.

Keyser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If he contend, as sometimes he will contend, that he has defined all his terms and proved all his propositions, then either he is a performer of logical miracles or he is an ass; and as you know, logical miracles are impossible.’^⑮ 我田引水格으로 自己가 有利하게 모든 가정을 규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만족하고 있는 者는 바보거나 기적을 만드는 者

註 ⑭ 註 ⑤書, p. 33.

⑮ 註 ⑤書, p. 35~32.

라고 하고 論理의 奇蹟은 없다고 지적했다. 言明의 형태가 人間을 해석하는데는 부적당하다는 것을 의미론 학자들은 모르고 있다. 가령 構文論의으로 檢證可能한 言明이 有意味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人間의 眞僞를 判斷하는데는 不適當할 때가 많다. ⑩ 原則的으로 主述言明 (Subject-predicate form)에 基礎한 教育은 모든 것을 均齊 (Symmetric)한 關係로만 說明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意味의 형클어진 숲을 헤치는 것 같지만 사실상 評價의 理論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 評價의 기준에 맞는 것은 均衡이 잡히지 않은 (asymmetrical) 關係式으로 그것이 올바른 評價를 할 수 있는 것이다.

Asymmetrical relations are involved in all series—in space and time, greater or less, whole and part, and many others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actual world. All these aspects, therefore, the logic which reduces everything to subjects and predicates is compelled to condemn as error and mere appearance.

—Bertarand Russel—

사실은 誤謬를 범하고 있지만 皮相의인 觀察로 엄격하게 보이는 主述言明 判斷은 實在 世界에서는 不適當하다. 오히려 實在 世界는 非論理의인 調和되지 않은 關係의 理論으로 이루어졌으므로 均衡잡히지 않은 關係式이 모든 世界의 비밀을 들추어 낼 수 있는 것이다. Keyser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存在는 關係式이다 (To be is to be related). 그러나 人間의 비밀은 論理的인 關係式으로 說明할 수 없는 生物, 生理學的 其他 모든 科學이 참여되는 全體 組織 (the organism-as-a whole)으로서의 關係式이다. 이 말은 非原理 (Non-elementalism)의인 一般 構造式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組織 (organism)이라 함은 代數的인 部分의 合計가 아니라 積分的인 總合을 意味한다. 여기서의 非加算法 (Non-additivity) 즉 어떤 總計的인 積分法은 人間의 複雜한 문제를 새로운 分析方法으로 接近하려는 試圖다. 그것은 마치 內在的 意味를 外在的 意味로 解釋하려는데 混亂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Korzybski는 內在的 意味와 外在的 意味를 解釋하는 方法으로 集團을 이룬 個體의 수효를 세는 것과 같은 意味를 外在的 意味, 個體의 本質을 헤아리는 것을 內在的 意味라 규정하였다.

Intensional relations are relations of “concepts”; extensional relations are relations of denoted facts. Or ‘relations of intension are those which are ascertainable a priori; a relation of extension is discoverable only by inspection of existent’ or intension covers the relations which hold for all the possible individuals, while extension holds only for the existent.’ A relation of intension is one which is only discoverable by logical analysis; a relation of extension is one which is only discoverable by the enumeration of particulars. ⑪

註 ⑩ 註 ⑦書, p. 103~104.

⑪ Korzybski: *op. cit.*, p. 173.

Hayakawa 는 “天使들이 밤에 나의 침대를 돌보았다”란 叙述은 內在的 意味는 가지지만 外在的 意味는 없다고 했다. 즉 어떤 討論이 『天使가 나의 침대를 돌보고 있는가 없는가』란 題目으로 始作되었다면 <크리스찬>과 <非크리스찬>, 信仰家와 不信仰家, 神秘論者와 科學者, 이러한 討論 參加者 全部에게 滿足하도록 그 討論을 끝낼 길이 없다. 이런 討論은 天使를 볼 수도 없고 觸感할 수도 撮影할 수도 없고 如何한 科學的 方法으로도 天使의 存在를 確認할 수 없는 까닭에 끝이 없고 結實도 없다. 따라서 그러한 論爭은 피하여야 한다. 그 反對로 『이 房의 길이는 12呎이다』하면 討論은 그대로 證據이다 라고 비유했다.

<Donnotation may be said to be the start point of connotation.>

표시적 의미는 內包的 意味의 出發點이다. 여기서 Denotation 은 外在的 意味를 말함이고, Connotation 은 內在的 意味를 말함이다. <늪을 잃고 나른하고 양지바른 시간에 참으로 가없는 그대 幻像이 갖추는 모습>—푸른 하늘에 絕對者의 幻像을 摸索하는 타고오르의 詩다. 이런 種類의 叙述은 外在的 意味를 찾을 길이 없다. 實證할 可能 科學이 없다. 이 言語的 世界와 地圖와의 類比에서 注意하여야 할 것은 虛偽의 地圖가 머리에 들어 오는 것이다.

그러나 文字의 感化的 眞實과는 구분되는 點이 있다. Korzybski 는 “Pure extension is humanly impossible; pure intension is possible, and is often found in hospitals for ‘mentally’ ill, and in some chair of philosophy.”라고 지적하고 絕對 內在的 思考主義者는 뇌병원의 환자와 같이 취급하고 이 內在的 思考의 意味와 外在的 思考의 意味에 對한 方法論的 體系를 一般人들은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커다란 言語意味의 混亂과 公害가 일어난다고 結論했다.^⑧

4. 二值的 思考方式(The Two-Valued Orientation)

유클리드, 뉴턴體系는 電流와 같은 思考를 다루는데는 不適當하다. 그런 意味에서 非유클리드의인 體系의 革新이 緊要하게 되었다. 그것이야 말로 微視的인 혹은 巨視的인 粗野한 對象에도 잘 適應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틀이 너무 잡힌 表現이나 理論은 여러가지 不當한 制約이나 不適應症을 惹起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인 二值的 思考(The Two-Valued Orientation)는 健全한 電子의 아교질적인(electro-colloidal) 신경의 微細한 部分을 다루는 데는 不適當하다. 非體系와 反體系와는 다르다.



왼쪽 그림 1에서 우리가 A.E.N. 으로 표시된 아리스토텔레스(A), 유클리드(E), 뉴턴(N)의 體系와 非아리스토텔레스(A), 非유클리드(E), 非뉴턴(N) 體系와를 比較해 보면 중요한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소위 $\bar{A} \bar{E} \bar{N}$ 三重奏의 體系는 AEN 體系보다 普遍的이다. $\bar{A} \bar{E} \bar{N}$ 體系는 AEN 體系를 特殊한 경우의 一部分으로써 포함시키고 있다. $\bar{A}, \bar{E}, \bar{N}$ 의 새 理論을 教育받은 사람은 舊 A, E, N 體系를 $\bar{A} \bar{E} \bar{N}$ 體系의 一部分이기

註 ⑧ Ibid., p. 32.

때문에 理解하기 쉽지만 AEN 體系 理論만을 아는 사람은 새 AEN 體系를 理解하는데 심한 意味論的 障礙를 받는다는 것이다.

事物을 두 개의 價値로서 보는 傾向——即 肯定과 否定, 善과 惡, 熱과 冷, 愛와 憎을 二值的 思考(two-valued orientation)라고 부른다. 文化人類學者들이 보여 주다시피 어떤 型의 原始的 社會에서는 自由는 거의 없고 善과 惡에 關한 嚴한 強制가 生活의 모든 面을 支配하고 있었다. 例컨대 사람은 成功하기 위하여 特別한 儀式을 하고, 特別한 方法으로써 狩獵이나 漁獵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他人의 그림자를 밟는 것을 避하고 단지를 움직일 때에도 左에서 右로가 아니라 右에서 左로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또 惡靈에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이름으로써 부르지 못한다. 새가 마을 위를 날면 <幸運>이나 <惡運>이 온다. 이러한 評價體系下에서는 어떤 것도 無意味하거나 偶然한 것이 아니다. 보는 모든 것은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면 그것은 꼭 두개의 價値中의 하나로 判斷되어야 한다.¹⁹

5. 韓國文學에 나타난 二值的 思考方式

韓國古典文學의 構造樣式은 兩面的 特性을 지니고 있다. 플롯에 있어서 勸善懲惡의 類型이 압도적으로 많다. 善과 惡이 언제나 對立되어 투쟁하는 장면이 나온다. 철저히 善人이고 철저히 惡人인 두 類型의 人物이 對立되는 場面은 古代小說에서부터 新小說에 이르기까지 거의 公式化되다시피 되었다. 가령 공취 팔취라든지 흥부 놀부傳 등 古代小說의 多大數가 이 要素에 속한다. 「新小說은 그 殆半이 勸善懲惡의 作品들이다. 人物로서는 으레 善한 편과 惡한 편의 對立된 두개의 型이 設定되고 끝에 가서는 으레 惡한 편이 敗北하는 結末을 맺는 것, 이것은 古代小說이 共通의 性格인데 이것을 新小說은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²⁰

둘째는 그 人物의 定型性이다. 一例를 들면 古代小說에서는 戒모는 언제나 惡한 人物의 定型인데 그런 例가 新小說에도 나타나 있다. 新小說의 雉岳山같은 것은 直接 一種의 戒모소설일 뿐 아니라 그 人物配置가 『薔花紅蓮傳』과 거의 비슷하다. 대체로 惡한 人物에 속하는 一黨, 善한 人物에 속하는 人物型들이 類型의 型으로 나오는 점, 이것은 新小說에 또 하나의 古代小說的인 낡은 바, 여기서 新소설은 다시 한번 낡은 印象을 주고 있다.

세째는 역시 勸善懲惡 構話性에서 오는 것으로 結末이 모두 海피엔드로 끝나는 것 이것도 古代小說의 結末과 一致되는 낡은 要素이다. 結論하면 韓國古典文學과 新小說의 많은 部類가 二值的 思考의 誤謬에 빠져 있다.

二值的 思考의 오류에서 벗어난 가장 큰 罪악은 히틀러를 위시한 역대 英雄 칭호를 받는 많은 部類들이 저질렀다. 가깝게 요즘 韓國社會에서 벗어난 두 個의 커다란 事件中 永登浦 10

註 19 Hayakawa, 註 2書, p. 223.

20 李秉岐: 『國文學全史』, p. 256.
白 鐵

代 카빈발사 사건과 特殊犯罪者들의 所行이다. 예컨대 永登浦事件만 해도 그렇다. 기사수업을 하는 동키호텔과 산초처럼 강원도 산골에서 세상을 깜작 놀라게 할 작정——二值的 思考의 誤謬——으로 서울을 떠나 殺人까지 하게 된 동기는 勿論 옥구불만에서 오는 二值的 思考의 結果에서이다. 동기에서 二值的 思考의 誤謬를 지니고 있는 두 벽촌의 少年들은 계속 이 二值的 思考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는 悲劇을 빚어 냈다. 「정말 시골과는 별 천지인 화려하고 고급주택이 즐비한 서울」을 二值的 思考로 하여 서울과 시골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평상시 價値가 完全히 顛倒되었다. “돈을 안내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종업원의 위협에 二值的 思考의 오류로 경찰에 끌려 가면 세상 끝나는 줄 알게 되었고, 피를 본 少年들은 92발의 총탄을 남발하였는데, 이것도 極과 極만을 생각하게 된 二值性이다. 실미도 特殊犯들의 所行에 있어서도 그렇다. 실미도의 單調로운 곳에서 外在的 意味에 욕망을 發散할 機會를 상실하고 단지 內在的 思考에서 연역되는 二值的 思考方式은 더욱 強力하게 되었다. 삶과 죽음, 是非의 極限狀況의 思考를 人生의 公式의 틀로 認定하는 데서 커다란 社會의 混亂이 빚어진 것이다.

요컨대 二值的 思考는 투쟁심을 일으킬 뿐이지 그 밖에는 아무 所用도 없다. 그리고 二值的 熱狂과 誇張의 雄辯은 大衆의 관심을 더 切實한 問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軍特殊犯의 난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司法波動문제」 등으로 야단법석을 하고 있으면 大衆은 더 切實한 問題, 家屋法이나 道路資金의 流用問題, 土壤의 保全問題 그리고 公益事業等에는 着眼도 못한다. 싸움과 激烈한 討論 以外에 日常生活의 言語中에는 多值的 思考(multi-valued orientation)가 있다. <善>과 <惡> 代身 <大端히 나쁘다> <나쁘지 않다> <공평하다> <좋다> <大端히 좋다> 등으로 細分할 수 있다. 醫師는 모든 사람을 健康과 疾病의 두 種類로 大別하는 일은 없다. 그는 疾病이라고 稱하는 無數한 상태를 區別하여 無數한 處方 또는 處方의 複合을 適用한다. 그러나 魔法使用 醫師는 모든 疾病에 對하여 노래와 춤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절쟁이나 무당들은 오직 귀신이 들렸다고만 한다.

Hayakawa는 二值論理는 感情이 介入되기 쉽고 事實을 外面한 論爭과 對立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히틀러는 自己組織의 重要한 用語로서 <아리안民族>이란 말을 使用하여 모든 善을 代表하는 것으로 하고 <非아리안民族> (또는 유대의)이란 말을 選擇하여 惡을 代表하는 것으로 했다.

「獨逸國民은 國家社會黨員이다. 黨員아닌 小數는 精神病者이거나 愚者이다.」

히틀러는 二值的 思考의 誤謬에 빠진 가장 代表的인 人物이다.

6. 共感覺 隱喩

「共感覺 隱喩는 一般 意味論에 重視하는 研究 分野다. 共感覺 隱喩(Synaesthetic Metaphor)는 隱喩의 한 分派로 한 刺戟에 따라 그에 相應하는 다른 領域의 感覺이 換起되는 경우, 例컨대 소리를 들었을 때 그와 類似한 觸感이 換起되거나, 빛[視覺]을 보고 소리[聽覺]로 感覺을 轉移 聯想하는 현상이다.」²¹ Ullmann은 人間 共通의 共感覺層이 人間 內部에 潛在한다고 지적했다. Herbert Read도 “美의 構造는 수없이 많으나 美란 무어니 무어니 해도 역시 感覺의 知覺으로 形象化된 어떤 統一된 關係”²²라고 했듯이 感覺의 構造性 綜合性은 藝術世界에서 基本的인 問題이다. 「聞香」이라는 日常用語는 嗅覺을 聽覺으로, <멋>은 <맛>에서, 즉 味覺에서 由來한 視覺化다. 한 미디어는 다른 미디어가 내용으로써 주어지므로 해서 그 效果를 높이고 強力해질 수 있다.

어둠 속에서 무슨 내음새의 꼬리를 체포하려,	Sight> Scent
香氣가 滿開했다.	Sight> Scent
캄캄한 空氣를 마시면	Taste> Touch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Sight> Sound
우유차의 방울소리가 하얀 午後를 실고	Sight> Sound
참새들의 이야기도 꺼져 버렸고	Sight> Sound
찬 젖대 소리	Heat> Sound

以上은 李箱, 鄭芝溶, 金光均, 金起林 등의 詩에 나타난 共感覺 隱喩를 任意로 抽出했던 것이다. 知性이란 실제적인 사소한 일의 단순한 集塊로만 成立되는 것은 아니다. 歷史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은 사실상 인간의 내부와 외부와의 <공통된 근원>의 交替현상이다. “모든 것은 關係지어진 것이다” 하워드·엔드가 지닌 메시지에 “그저 연결하라”는 말이 있다. 聯想한다는 것은 “한데 맞추어 잔다”는 意味다. 詩人の 가장 幸福한——그리고 가장 치명적인——遊戲의 하나는 그러한 照應(Correspondence)을 찾는 데 있다. 小說의 技法에 있어서도 소설은 살아 있는 물건으로서 다른 어떤 유기체와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하나 하나의 끊임없는 同質體다.

孝石의 <들>에

「야들 야들 나부끼는 초목의 양자는 부드럽게 쫓는 음악, 즐기는 굽고 잃은 연한 멜로디의 마디 마디다」 음악[聽覺]과 나무[視覺]의 交感覺 현상을 볼 수 있다. 일찌기 東洋에서도 『黃帝內經』에 色과 音과 味의 同一系列 關係式을 밝혔다.

註 21 拙稿: 共感覺 隱喩의 構造性(國語國文學 49, 50 합번호), p. 184.

22 Herbert Read: The Meaning of Art, p.19.

(色)	青	赤	黃	白	黑
(音)	角	徵	宮	商	羽
(味)	酸	苦	苦	辛	鹹

이 論理는 陰陽五行說의 原理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인데, 佛의 상징주의의 鼻祖 보드레르가 “音響, 色彩, 香氣 가운데는 等價物이 있다. 例컨대 어린이의 피부와 같이 新鮮하고 오보에와 같이 포근하고 목장과 같이 초록색인 香氣와 같은 것이다.”라고 지적한 것은 黃帝內經에서 밝힌 바와 一致한다. 人間 內面 世界를 演繹하기 위해 投影된 이미지 구조도는 原子核을 中心으로 하여 電子가 回轉하는 構造圖를 聯想케 한다. 새로운 像(icon)의 構造가 創造되는 과정은 이런 關係式에서 움직이는 構造圖를 抽象해야 한다.

結 語

19C가 分析考察의 時代라면 20C는 모든 學問의 多様な 統合의 時代라 할 수 있다. 一般意味論은 말하자면 綜合 學問의 代表的이라고 名稱할 수 있다. 人間에 對한 總體의 科學으로 모든 領域의 學問이 총동원 되어 진설한 一般意味論은 Hayakawa가 指適한대로 記號學(Significs), 數理物理學(Mathematical physics), 操縱學(Cybernetics), 心理學(Psychology), 文化人類學(Cultural Anthropology), 生理學(Physiology), 神經學(Neurology), 論理學(Logic) 등의 廣範한 領域의 總體 科學으로 形成된 學問이다. 從來처럼 問題 解決에 固執化된 線的인 分析의 二值的, 絶對的, 原始科學의 環境 輕視的인 思考로 接近하는 方法이 아니라, 流動的이고 立體的인 綜合, 相對的이고 多值的인 思考方式 그리고 環境 意味的인 接近方法이 一般意味論의 方法이다. 科學은 固定 觀念으로 發展할 수 없고, 事實에 忠實하고, 變化에 相對的으로 照應되어 새로운 法則이 無限히 可能하게 生成되어 發展하는 것이다. 地圖가 現地(territory)를 代辯하는 것이지만, 現地는 끊임없이 變하는 것이므로, 固定 記號화된 地圖는 언제나 現地와는 距離가 있다. 時間이 길면 길수록 地圖와 現地의 간격은 멀어진다. 人間의 眞理도 原則적으로 變한다. 現地 狀況이 變하듯이 말이 가리키고 있는 事物(thing)은 變한다. 固定된 言語의 틀로 觀念을 올개미 썩우는 矛盾은 打破되어야 한다는 것이 一般意味論의 核心的 要旨이다. Korzybski가 상징적으로 名稱한 非아리스토텔레스系(Non-Aristotle system)는 流動的인 思考의 흐름을 重視한 것이고 事物에 對한 多角的이고, 包括的인 接近方法이다. 이것은 여러가지 意味의 障害를 감소시키고 人間 상호간 不協和音이나 언어 독서 장애까지도 치유한다.

文學作品 內容 意味 問題도 一般意味論의 方法論으로 接近하면 眞正 그 價値 評價가 正當해될 것이다.

詩 作品에 나타난 共感覺 隱喩는 一般意味論의 理論을 成立시키는 重要한 背景이다. 韓國民族은 日常 言語, 詩, 小說 作品 등에서 多樣하게 共感覺의 言語들을 使用하고 있다. 古代小

說 등에서 흔히 發見할 수 있는 二值的 思考 등 非合理的 言語公害는 共感覺的 隱喩의 多義性과 言語 感覺 回轉 등과 아울러 重要的 研究課題가 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1. Alfred Korzybski. Science and Sanity. an introduction to Non-Aristotelian systems and general semantics, 1933, 4th Edition.
2. S.I. Hayakawa,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1964.
3. Stuart Chase, The Tyranny of Words, 1939.
4. Hugh R. Walpole. Semantics, 1941.
5. David K. Berlo,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1960.
6. Wendell Johnson, People in Quandaries, 1946.
7. Rudolf Carnap,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Formalization of Logic, 1943.
8. S. Ullmann. The Principle of Semantics, 1957.
9. Language, Meaning and Maturity, Edited by S.I. Hayakawa, 1954.
10. The Use and Misuse of Language. Edited by S.I. Hayakawa, 1962.
11. Herbert Read, The Meaning of Art, 1951.
12. Louis B. Saloman, Semantics and Common Sense, 1966.
13. Bernard F. Huppe, and Jack Kaminsky: Logic and Language, 1956.
14. Adventure of the Mind Edited by Richard Threulsen and John Kobler, 1961.
(20世紀를 代表한 現代知性的의 십포지움 번역판)
15. 마살텍루한, 人間의 擴張 (金仁鴻 역).
16. 李奎浩, 말의 힘, 1968, 제일출판사.
17. 李乙煥, 美國 一般 意味論의 成立背景, 1969,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韓國言語習慣의 分析理論 樹立을 위하여—
18. 拙稿, 韓國語隱喩의 意味論의 考察 (鄭寅承博士 古稀紀念號), 1969.
共感覺隱喩의 構造性, 國語國文學 第 49, 50合併號, 1970.
—現代 韓國詩를 中心으로—
19. 李 乙 煥 共著: 國語意味論, 1964.
李 庸 周
20. 李 初 植 譯: 現代의 思考方式, 1964.
I. M. 보헨스키